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에 대한 종적 연구
— 자연 발화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진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조교수(제1 저자)

하호빈 흥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원(교신저자)

- * 이 논문은 제73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1.4.17.)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머리말
- II. 선행 연구 검토
- III. 실험의 진행 및 결과
- IV. 유형별 오류 분석
- V. 맺음말

I. 머리말

이중언어(bilingual) 또는 다중언어(multilingual)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일본어권 학습자가 한국어를 발음할 때 보이는 특징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는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워한다는 것, 두 번째는 ‘ㅡ, ㅜ, ㅓ, ㅗ’ 등의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워한다는 것, 세 번째는 받침을 전반적으로 발음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특징은 한국어의 초성, 즉 음절 초 자음에서 나타나는 평음, 경음, 유기음 간의 3항 대립을 일본어권 학습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특징은 후설 모음 위치에서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어의 원순성 대립을 일본어권 학습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다. 세 번째 특징은 종성, 즉 음절 말 자음이 기본적으로 구강 내에서 고정적인 조음 위치를 가지지 못하는 일본어의 음운론적 속성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을 통해 나타나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징들이 모든 일본어권 학습자들에게서 예외 없이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동일한 학습자에게서 초성, 중성, 종

성의 오류들이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는 경우는 쉽게 찾기 어렵다. 또한 한 학습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정 발음 오류가 다른 학습자들에게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아울러 특정 발음 오류가 숙달도의 변화 과정과 무관하게 동일한 학습자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없다. 요컨대 학습자의 목표어 발음이 가지는 특징은 항목에 따라서, 학습자에 따라서, 그리고 학습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어를 제1언어(first language, L1)로 하는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발음하는 양상을 학습자별 숙달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동일 학습자로부터 얻어낸 각각의 자연 발화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학습자의 발음과 관련된 기준의 논의들이 대체로 통제된 상황에서 비동일 학습자들로부터 얻어낸 횡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본고는 동일 학습자의 자연 발화로부터 얻어낸 종적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학습자 오류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자연 발화에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또는 기존에 주목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오류가 무엇인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소 목록 대조를 바탕으로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분석을 진행한 논의는 권성미(2007), 박창원·오미영·오은진(2006), 우인혜(1998), 윤영해(2018), 이효숙(2012), 조성문(2004), 하세가와 유키코(1997) 등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발음을 어려워하는 기본적인 원인을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거나 일

본어에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 한국어의 음소들로부터 찾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일본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초성 자음을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평음, 경음, 유기음의 대립이 존재하는 한국어의 초성 장애음이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만 존재하는 일본어의 초성 장애음에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일본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모음을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한국어의 ‘ㄱ, ㅋ, ㆁ, 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음이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원순성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어의 후설 모음에 한국어의 후설 모음이 정확히 대응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에 대한 논의는 권현주(2006), 이효숙(2008), 장향실(2016), 조성문(2000), 하호빈·이화진(2019)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논의 또한 기본적으로 대조적 관점에서 학습자 발음을 분석한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절 구조 및 음절 말 자음의 속성이 가지는 차이가 결과적으로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즉 고정적인 조음 위치를 가지는 장애음과 공명음이 모두 음절 말에서 단독으로 실현될 수 있는 한국어와 달리, 일본어는 후행 음절 초 자음에 의존적인 음절 말 장애음과 구강 내 조음 위치가 없는 음절 말 비음이 제한적으로 실현되는 음절 구조를 가진다. 이로 인해 일본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종성이 가지는 조음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오류를 빈번하게 일으키게 된다. 아울러 종성의 분포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한국어의 음절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개음절화 또는 종성 탈락과 같은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

이상의 논의들은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분석과 관련된 이론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만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실들이 실제 개별 학습자들의 다양한 발화 양상을 통해 확인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다소 부족한 듯하다. 특히 기존의 논의들은 대체로 특정 시점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 수준이 서로 다른 비동일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하는 경우가 많으며, 통제된 환경에서 도출된 학습자 발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경향이 같다.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동일 학습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 아래에서 한국어를 발화할 때 발생하는 오류들의 추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I. 실험의 진행 및 결과

본고는 일본인 학습자가 학습 단계에 따라 한국어를 발음하는 양상이 변화하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서울 소재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게 된 다음의 일본인 학습자 5인을 섭외하였다.

〈표 1〉 실험 참여 학습자 정보

학습자 번호	성명	생년	성별	출신 지역
1	HASHIMA *****	1994	여	사가현
2	SUGITA *****	1997	여	도야마현
3	SUZUKI *****	1988	여	미에현
4	ITO *****	2000	여	이와테현
5	BANJO ***	1999	여	아이치현

이들은 모두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입문 단계인 1급부터 한국어를 배우게 된 순수 어학 연수생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고급으로 진급하기 직전

1) 통제된 환경에서는 학습자 발화에 대한 자기 겸열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자연스러운 발화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다.

단계인 4급까지 매 학기 각각 2회씩 자유로운 발화가 이루어지도록 인터뷰를 진행하였다.²⁾ 인터뷰는 해당 학습자의 담당 교사가 방과 후 교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학습자가 발화한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다.³⁾ 녹음된 내용은 실험 진행자가 모두 직접 청취하며 전사하였고, 이후 본 연구자가 녹음된 내용과 전사된 내용을 대조하며 실험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총 31,872개의 음절에 8,046개의 어절로 이루어진 5인의 학습자 발화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구축되었다.

〈표 2〉 학습자 발화 데이터

피실험자	급수	음절 수	어절 수
학습자 1	1급	1818	451
	2급	1927	477
	3급	1866	485
	4급	1820	452
학습자 2	1급	1276	298
	2급	1099	280
	3급	2006	493
	4급	1349	347
학습자 3	1급	1871	473
	2급	1236	318
	3급	1874	489
	4급	2270	589

-
- 2) 인터뷰의 주제는 해당 학기의 교과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 3) 녹음은 SONY의 ICD-TX650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녹음 및 자료의 활용에 대해 동의한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습자 4	1급	1332	331
	2급	990	240
	3급	1580	410
	4급	2007	506
학습자 5	1급	1484	369
	2급	1085	272
	3급	1487	379
	4급	1495	387

위의 데이터에는 학습자의 비언어적인 발성 또는 ‘아, 에’와 같이 휴지 구간에서 나타나는 무의미한 발성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학습자 본인에 의한 요인이나 주변 환경에 의한 요인 등으로 인해 청취 및 판단이 불가능한 발화도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다.⁴⁾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자별 한국어 발음 오류를 음절에 분포하는 분절음 단위로 판별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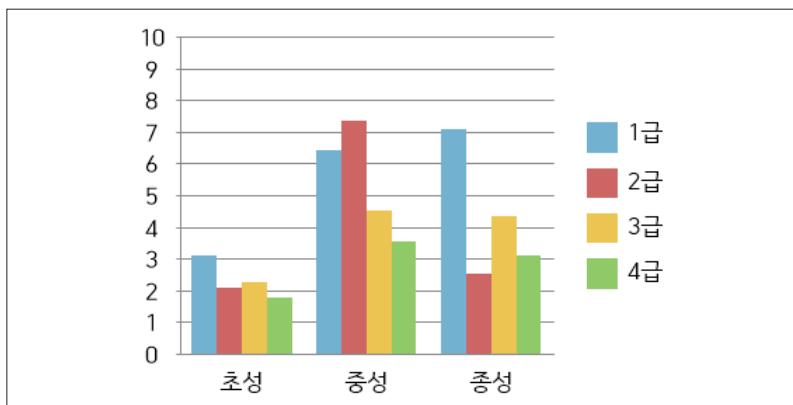
〈표 3〉 학습자별 오류 발생 건수

분포 위치	급수	학습자 1	학습자 2	학습자 3	학습자 4	학습자 5
초성	1급	14	5	20	14	11
	2급	10	6	21	10	8
	3급	11	8	19	7	2
	4급	8	14	18	12	5

4) 학습자 본인의 매우 부정확한 발음,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실 주변의 소음 등이 이에 해당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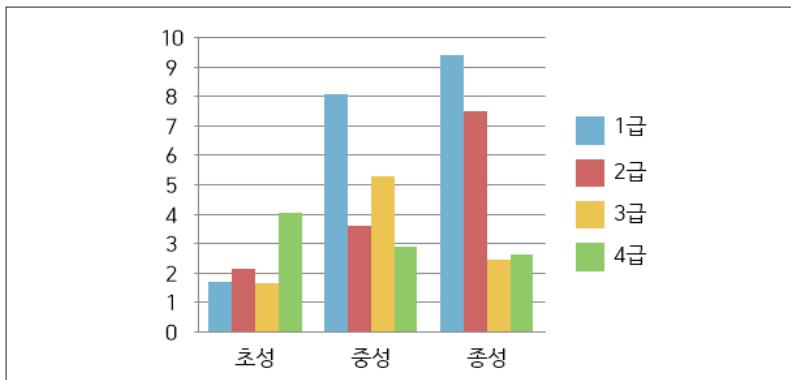
	1급	29	24	20	20	17
중성	2급	35	10	22	7	6
	3급	22	26	26	27	17
	4급	16	10	30	29	20
	1급	32	28	27	5	15
종성	2급	12	21	11	5	3
	3급	21	12	15	1	7
	4급	14	9	12	15	8

위의 내용은 학습자별 오류가 발생한 횟수를 절대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학습자 간 오류 발생 횟수 비교는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자연 발화에 가까운 데이터의 특성상 학습자별, 급수별 전체 발화량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는 다음과 같이 학습자별로 오류가 발생한 해당 급수의 전체 발화량을 대비시켜 나타내야 한다. 다음의 그래프들은 각 학습자가 발화한 해당 급수의 전체 어절 수 대비 오류 발생 건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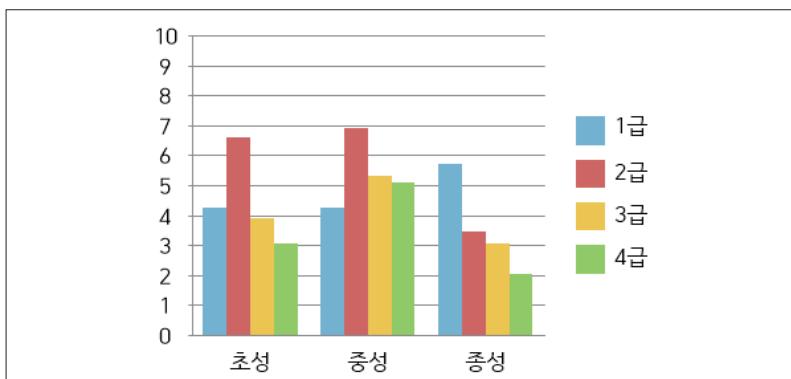
〈그림 1〉 학습자 1의 오류 발생 추이

학습자 1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발음 오류가 학습 초기에 비해 전 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중성 및 종성 오류의 경우 초급 단계에 비해 중급 단계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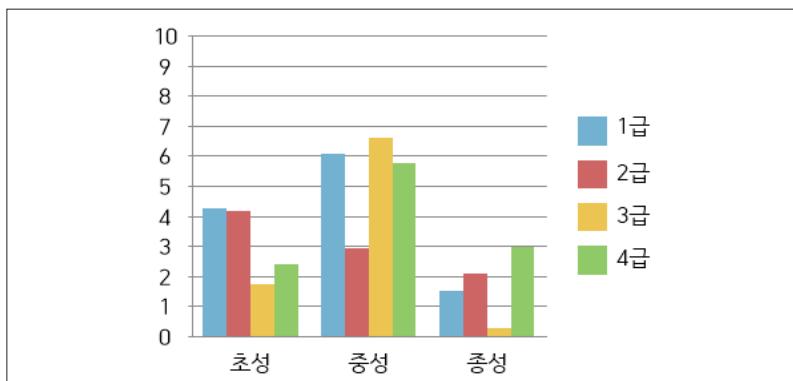
〈그림 2〉 학습자 2의 오류 발생 추이

학습자 2의 경우에도 중성 및 종성 오류가 초급 단계에 비해 중급 단계에서 대체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성 오류의 경우 가장 높은 학습 단계인 4급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학습자 2가 학습자 1에 비해 숙달된 한국어의 초성 발음에 어려움을 보였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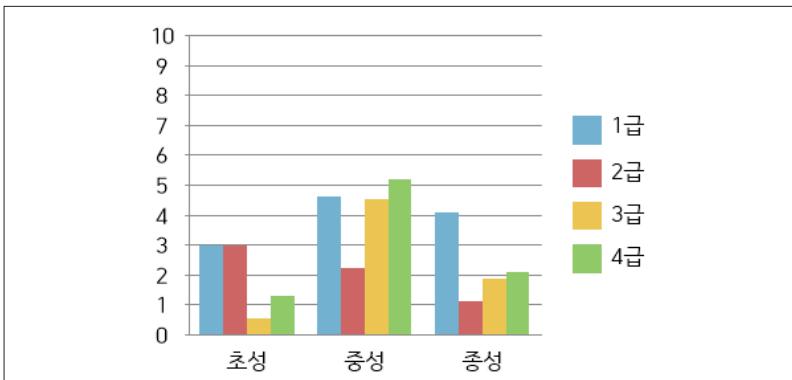
〈그림 3〉 학습자 3의 오류 발생 추이

학습자 3의 경우 학습자 1과 학습자 2에 비해 초성 오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종성의 발음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학습 단계의 상승에 따른 발음 오류의 감소가 두드러지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학습자 3이 초성과 중성의 발음에서 숙달도 향상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 학습자 4의 오류 발생 추이

학습자 4의 경우 다소 특이한 추이를 보인다. 초성의 발음에서는 중급 단계의 오류가 눈에 띄게 감소하나, 중성의 발음에서는 2급 때 오류가 대폭 줄어들었다가 중급 단계에 들어 오히려 오류가 1급 때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성의 발음에서는 3급 때 매우 낮은 오류율을 보이다가 4급에 들어서 초급 단계보다도 높은 오류율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학습자 4가 학습 과정에서 중성과 종성의 발음에 혼란을 겪을 여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림 5〉 학습자 5의 오류 발생 추이

학습자 5의 경우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빈도의 오류가 나타난다. 특히 초성의 경우 중급 단계에서 오류가 매우 낮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성의 경우 중급 단계에서 초급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빈도의 오류가 발생한다.

모든 학습자들의 오류 발생 추이를 통틀어 볼 경우, 대체로 중성의 발음에서 학습 단계에 따른 숙달도 향상이 더디게 나타난다. 반면 종성의 발음에서는 다소 특이한 추이를 보인 학습자 4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학습 단계와 숙달도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일본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중성 발음의 숙달도 향상에 어려움을 보이고 한국어 종성 발음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한 숙달도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초성, 중성, 종성의 발음과 관련된 각각의 항목을 세분화하여 볼 경우, 그와 같은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진다. 초성, 중성, 종성은 기본적으로 모든 음절에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으며, 특정 범위의 분절음 목록 하에서도 학습자의 발음 오류는 각각의 분절음에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의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오류의 세부 유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그러한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다.

IV. 유형별 오류 분석

분절음 단위로 나타나는 일본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는 크게 초성 오류, 중성 오류, 종성 오류로 나뉘지만 그 아래에는 다양한 세부 유형들이 존재하며, 그들 가운데 어떤 것은 특정 학습자에게서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즉 모든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동일한 오류 발생 추이를 보이지 않듯이, 오류 유형의 측면에서도 각각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다음은 실험을 통해 확인된 5인의 학습자들의 오류 유형을 종합한 것으로, 총 16개의 세부 유형으로 정리된다.

〈표 4〉 학습자 오류의 세부 유형

분포 위치	유형	예시
초성	평음 경음 대치	ㅅ ~ ㅆ, ㅂ ~ ㅃ, ㄱ ~ ㄲ, ㄷ ~ ㄸ
	평음 유기음 대치	ㅈ ~ ㅊ, ㅂ ~ ㅍ, ㅋ ~ ㅋ, ㄷ ~ ㅌ
	경음 유기음 대치	ㅉ ~ ㅊ, ㅃ ~ ㅍ, ㄲ ~ ㅋ, ㄸ ~ ㅌ
	연구개음 첨가	∅ → ㄱ
	기타 오류	ㅂ → ㄷ, ㄱ → ㅅ
중성	고모음 간 대치	ㅡ ~ ㅜ
	중모음 간 대치	ㅓ ~ ㅗ
	단모음화	ㅏ → ㅏ, ㅓ → ㅓ, ㅣ → ㅣ, ㅔ → ㅔ, ㅖ / ㅒ → ㅣ
	활음 첨가	ㅜ → ㅠ, ㅓ → ㅓ
	기타 오류	ㅏ → ㅓ, ㅓ → ㅏ
종성	비음 간 대치	ㄴ ~ ㅁ ~ ㅇ
	장애음 간 대치	ㄷ ~ ㅂ ~ ㄱ
	개음절화	을 → 우르, 암 → 아므, 익 → 이그
	탈락	ㄴ / ㅁ / ㅇ / ㄹ → ∅
	비음 첨가	∅ → ㄴ / ㅁ / ㅇ
	기타 오류	ㄴ → ㄱ, ㅂ → ㄹ

위의 표는 5인의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난 모든 오류들을 유형화한 것으로, 대다수가 앞선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일본인 학습자들의 대표적인 오류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기존에 전형적인 오류로 취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유형의 오류가 일부 확인되며, 기타 오류와 같이 별다른 음운론적 동기 없이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도 드물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들은 학습자별로 한국어 발음의 오류 발생 건수를 세부 오류 유형과 학습 단계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수치상 주목이 요구되는 오류는 음 영으로 표시하였다.

〈표 5〉 학습자 1의 학습 단계별 오류

분포 위치	총 오류 건수	유형	1급	2급	3급	4급
초성	43	평음 경음 대치	1	1	4	1
		평음 유기음 대치	9	7	1	5
		경음 유기음 대치	3	2	6	2
		기타 오류	1	·	·	·
중성	102	고모음 간 대치	17	27	13	7
		중모음 간 대치	8	5	3	6
		단모음화	2	1	6	2
		활음 첨가	·	2	·	·
		기타 오류	2	·	·	1
종성	80	비음 간 대치	14	7	11	13
		장애음 간 대치	4	2	1	1
		탈락	14	3	10	·

학습자 1의 경우 초성 위치에서는 평음과 유기음을 혼동하는 경향이 가장 강하며, 중성 위치에서는 ‘-’, ‘-’를 혼동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또한 종

성 위치에서는 ‘ㄴ, ㅁ, ㅇ’을 혼동하는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와 함께 종성 자음을 탈락시키는 오류가 3급 단계까지 적지 않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습자 1이 일본인 학습자로서 대체로 예측 가능한 전형적인 유형의 오류들을 일으키며 이러한 오류들을 학습 과정에서 쉽게 바로잡기 어려워함을 보여준다. 반면 종성의 경우 전형적인 유형의 오류 중 하나인 개음절화가 학습자 1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학습 초기부터 ‘책상 → 책사’, ‘생일 → 새일’, ‘수영장 → 수영자’ 등과 같은 탈락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표 6〉 학습자 2의 학습 단계별 오류

분포 위치	총 오류 건수	유형	1급	2급	3급	4급
초성	33	평음 경음 대치	1	2	3	4
		평음 유기음 대치	3	4	4	6
		경음 유기음 대치	1		1	4
중성	70	고모음 간 대치	12	3	13	6
		중모음 간 대치	10	6	5	4
		단모음화	·	1	7	·
		활음 첨가	1	·	·	·
		기타 오류	1	·	1	·
종성	70	비음 간 대치	5	4	3	7
		장애음 간 대치	·	1	·	·
		개음절화	17	4	2	·
		탈락	3	12	7	2
		비음 첨가	2	·	·	·
		기타 오류	1	·	·	·

학습자 2의 경우 5인 가운데 가장 다양한 유형의 오류를 일으켰는데, 초성과 중성을 발음할 때 평음과 유기음, ‘ㅡ’와 ‘ㅜ’를 혼동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학습자 1과 동일하다. 다만 종성 발음의 경우 학습 초기에 개음절화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나다가 학습이 진행될수록 그와 같은 오류가 점점 나타나지 않으며, 동시에 학습자 1의 경우와 유사한 종성 털락 오류가 2급과 3급 단계에 들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학습자 2가 종성의 자유로운 분포를 허용하는 한국어의 음절 구조 자체를 인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임을 의미한다.

〈표 7〉 학습자 3의 학습 단계별 오류

분포 위치	총 오류 건수	유형	1급	2급	3급	4급
초성	78	평음 경음 대치	7	3	5	2
		평음 유기음 대치	13	14	10	16
		경음 유기음 대치	·	4	3	·
		기타 오류	·	·	1	·
중성	98	고모음 간 대치	17	17	21	16
		중모음 간 대치	2	4	2	2
		단모음화	1	·	·	11
		기타 오류	·	1	3	1
종성	65	비음 간 대치	17	5	7	9
		장애음 간 대치	·	·	·	1
		개음절화	6	4	6	·
		털락	4	2	1	·
		기타 오류	·	·	1	2

학습자 3의 경우 모든 급수에 걸쳐 평음과 유기음의 혼동, ‘ㅡ’와 ‘ㅜ’의 혼동, ‘ㄴ, ㅁ, ㅇ’ 간의 혼동이 각각 초성, 중성, 종성 위치에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한다. 이는 학습자 3이 한국어 발음의 측면에서 가장 전형적인 유형에 속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오랜 기간 한국어에 충분히 노출된 4급 단계에서 단모음화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⁵⁾

〈표 8〉 학습자 4의 학습 단계별 오류

분포 위치	총 오류 건수	유형	1급	2급	3급	4급
초성	43	평음 경음 대치	·	2	1	3
		평음 유기음 대치	8	5	6	7
		경음 유기음 대치	3	3	·	·
		연구개음 첨가	3	·	·	1
		기타 오류	·	·	·	1
중성	83	고모음 간 대치	18	6	23	24
		중모음 간 대치	·	1	3	1
		단모음화	2	·	1	4
종성	26	비음 간 대치	3	3	1	10
		개음절화	·	2	·	·
		탈락	2	·	·	5

학습자 4의 경우에도 학습자 3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세부 오류 유형이 나타난다. 다만 학습 초기에 초성이 없는 음절의 발음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달리 ‘쇼핑을 → 쇼핑글’, ‘수영을 → 수영글’과 같이 연구개음 ‘ㄱ’를 첨가시키는 오류가 나타난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 이와 같은 오류는 대체로 모음

5) 단모음화의 경우 원순음 계열의 모음 및 활음을 잘 발음하지 못하는 일본인 학습자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자→가자’, ‘활동→활동’과 같은 발음은 한국인 화자의 일상 발화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되며, 그와 같은 현상이 4급 단계의 학습자에게서 갑자기 많이 발생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해당 학습자가 한국어의 현실음을 습득한 결과로 분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 선행하는 음절 말 자음이 ‘o’인 경우에 발생한다.⁶⁾

〈표 9〉 학습자 5의 학습 단계별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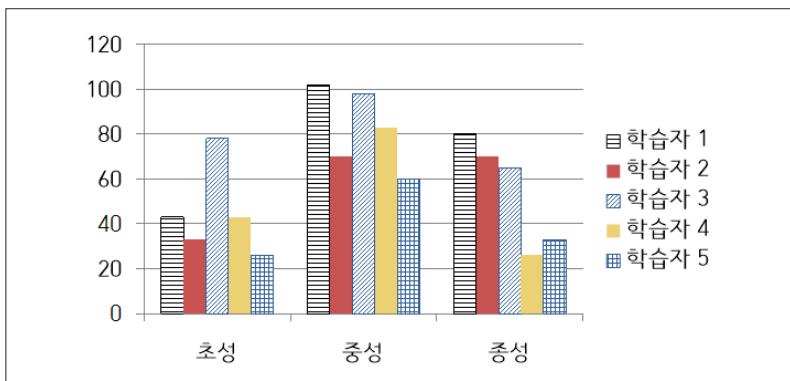
분포 위치	총 오류 건수	유형	1급	2급	3급	4급
초성	26	평음 경음 대치	5	·	·	·
		평음 유기음 대치	6	7	2	5
		경음 유기음 대치	·	1	·	·
중성	60	고모음 간 대치	15	5	13	18
		중모음 간 대치	1	1	2	2
		단모음화	1	·	·	·
		기타 오류	·	·	2	·
종성	33	비음 간 대치	9	2	6	6
		장애음 간 대치	1	1	·	·
		탈락	5	·	1	2

학습자 5의 경우 오류 발생 빈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부 오류 유형의 가짓수 측면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또한 학습자 3, 4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습 단계에서 평음과 유기음의 혼동, ‘-’와 ‘-’의 혼동, ‘ㄴ’, ‘ㅁ’, ‘ㅇ’ 간의 혼동이 각각 초성, 중성, 종성 위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학습자 5가 발음의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높은 숙달도를 나타낸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성 오류가 총 413회로 274회인 종성 오류와 223회인 초성 오류에 비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며, 학습자별로 살펴보아도 각각

6) 이를 학습자 4의 지역 방언과 관련지어 분석해 볼 수도 있겠으나, 지역적으로 가장 동떨어진 규슈(九州) 방언권의 학습자 1에게서는 오히려 눈에 띄는 발화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성 오류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림 6〉 학습자별 전체 오류 발생 건수 비교

위의 그래프는 학습자별 편차가 존재할지언정 대체로 일본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모음 발음을 가장 어려워함을 보여준다. 반면 초성 오류의 경우 학습자 3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학습자 4, 5의 경우 종성 오류의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낮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별로 살펴보면, 실제 발화에서 나타나는 세부 오류 유형이 서로 다르지만 초성 위치에서 평음과 유기음을 가장 많이 혼동하고 중성 위치에서 고모음 ‘ㅡ, ㅜ’를 가장 많이 혼동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종성의 경우 학습자 2를 제외하면 모두 비음 ‘ㄴ,ㅁ,ㅇ’을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초성에서는 평음과 경음의 혼동, 경음과 유기음의 혼동 순으로 오류가 나타나고, 중성에서는 중모음 ‘ㅏ,ㅗ’의 혼동, 단모음화의 적용 순으로 오류가 나타나며, 종성에서는 탈락, 개음절화 순으로 오류가 나타났다.

오류 유형의 측면에서 주목을 요구하는 부분은 모든 학습자들에게서 단모음화와 종성 탈락이 나타나는 반면 개음절화는 일부 학습자들에게서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종성 탈락의 경우 대체로 종성이 비음일 때, 그 가

운데에서도 ‘o’일 때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학습자 4에게서 나타난 연구개 음 ‘ㄱ’의 첨가 오류와 더불어 눈길을 끈다.⁷⁾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연구개 비음이 초성에 분포하지 못하는 한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이 일본인 학습자들에 의해 적용되지 못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을 듯하다. 아울러 이화진 (2018: 244)에서 일본어의 종성 비음 ‘ん’ [N]이 기본적으로 양음절성(ambisyllabicity)을 나타내며 실현된다고 지적한 사실 또한 이러한 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대표적인 종성 오류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어 온 개음절화의 오류는 학습자 2, 3, 4에게서만 나타났다. 또한 개음절화는 대체로 학습 단계가 진행되면서 발생 빈도가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곧 개음절화가 숙달도의 향상에 따라 비교적 쉽게 교정될 수 있는 종류의 오류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V. 맷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연스러운 발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은 대체로 기존의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들을 잘 반영한다. 다만 학습자에 따라서는 학습 단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특정 발음 오류를 쉽게 교정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학습 초기에 비해서도 많은 발음 오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7) 한재영·최정순·이호영·박지영·이강민·조현용 외(2003: 352)에서는 일본인 학습자들, 특히 관동 지방 학습자들이 ‘잉어 → 이거’, ‘담쟁이 → 담재기’와 같이 모음 간 ‘o’를 ‘ㄱ’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여기에서 언급한 관동 지방이 관서 지방에 상대되는 개념인지 학습자 4의 출신 지역인 동북 지방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본고의 실험 결과, 기존의 논의들에서 비교적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음절화가 모든 일본인 학습자들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설령 그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또한 모든 학습자들에게서 종성을 탈락시키는 오류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학습자에게서 나타난 연구개음 ‘ㄱ’의 첨가와 더불어 후속 논의를 요한다.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학습이 진행된 상태에서 일부 학습자에 의해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본 논문은 2021. 4. 28. 투고되었으며, 2021. 5. 13. 심사가 시작되어 2021. 6. 1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권성미(2007), 「한국어 단모음 습득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일본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현주(2006), 「특수음소의 변이음을 이용한 한국어 종성 발음 인지교육 방안-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문학』* 31, 35-54.
- 박창원·오미영·오은진(2006), *『한·영·일 음운 대비』*, 서울: 한국문화사.
- 우인혜(1998), 「한일 언어 비교를 통한 발음 교수법」, *『이중언어학』* 15, 319-347.
- 윤영해(2018), 「한국어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모음 연구- 중국어, 일본어 화자의 발음 양상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4(1), 175-194.
- 이화진(2018), 「한국어 비음화의 오류 유형과 원인 분석-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45, 229-249.
- 이효숙(2008), 「일본인의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교육문화연구』* 14(1), 179-213.
- 이효숙(2012), 「한국어 교육에서의 효율적인 발음 교육 방안 연구- 일본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향실(2016), 「중국어와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음절 종성 산출 차이 연구」, *『우리어문연구』* 55, 555-579.
- 조성문(2000), 「효율적인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한 연구- 일본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연구』* 6, 229-249.
- 조성문(2004),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빌음에 대한 연구」, *『음성과학』* 11(3), 69-81.
- 하세가와 유키코(1997), 「일본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 지도법- 입문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8, 161-178.
- 하호빈·이화진(2019), 「음절 연쇄에서 나타나는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 유형」, *『언어사실과 관점』* 47, 119-140.
- 한재영·최정순·이호영·박지영·이강민·조현용·추이진단·이선웅(2003), *『한국어 발음 교육』*, 서울: 한림출판사.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에 대한 종적 연구 — 자연 발화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진 · 하호빈

본 연구는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를 일정 기간 동안 동일 학습자로부터 얻어낸 자연 발화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가 대체로 연구자에 의해 가공된 데이터를 학습자에게 입력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학습자가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발화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자연 발화를 통해 검증한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는 대체로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 중성 오류의 경우 초성 오류와 종성 오류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나타나며, 그 가운데 고모음 간 대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초성 오류의 경우 평음 유기음 대치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종성 오류의 경우 비음 간 대치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대표적인 오류 유형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개음절화의 경우 모든 학습자들에게서 두루 나타나지는 않으며, 오히려 종성 탈락이 그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이는 종성과 관련된 한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이 일본인 학습자에 의해 적용되지 못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핵심어 종적 연구, 자연 발화, 발음 오류, 대치, 개음절화, 종성 탈락, 연구개음 첨가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Korean Pronunciation Errors of Japanese Learner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pontaneous Speech Data

Lee Hwajin · Ha Hobin

This thesis aims to analyze Korean pronunciation errors of Japanese learner based on the spontaneous speech data obtained from each learner over a certain period. In most earlier studies, learners' pronunciation errors tended to be analyzed based on manipulated data. In this thesis, however, the learners' pronunciation errors are treated as part of the natural utterance.

Japanese learners' pronunciation errors in actual speech generally corroborate the conclusions of earlier research regarding certain phonological phenomena, such as the high vowel alternation, nasal consonant alternation, and alternation between aspirated and lax consonants. Some phenomena, however, require another perspective that analyzes the learners' pronunciation errors. Open syllabification, which is the most typical type of error, does not occur frequently in the actual speech of Japanese learners, and final consonant deletion, which is not considered a representative type of error, is more common than open syllabification.

KEYWORDS Longitudinal Study, Spontaneous Speech, Pronunciation Error, Alternation, Open Syllabification, Final Consonant Deletion, Velar Insertion